

출판에 바친 50년의 인생

창업50주년 맞은 현암사 조상원 회장

“32살에 활자 호수도 제대로 모르면서 출판에 뛰어들어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출판쟁이’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적성 때문이었습니다. 15살때 책에서 본 좋은 동시를 인찰지 위에 베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출판이었던 셈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책을 내는 일이 즐겁게만 느껴졌으니 출판쟁이가 제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해방직후 대구에서 시작

17일 창업 50주년을 맞은 도서출판 현암사의 창업주 조상원(82) 회장은 출판에 바친 50년의 인생을 술회하며 그 공로를 주위의 은혜로 돌렸다.

“출판사를 경영해오면서 늘 ‘돈을 저축하느니 인심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울 때마다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70년대 중반 무리하게 《육당 최남선 전집》 15권을 내고 회사가 최고의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도 계몽사를 비롯한 동료 출판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원 회장이 출판업에 뛰어든 것은 해방직후인 45년 대구에서 월간종합지 <건국공론>을 창간하면서부터였다. 그후 2세인 조근태씨가 내를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암사는 1천여 종의 도서를 출간하면서 국내 출판계를 선도해왔다.

그중에서도 국내 최초의 범령집인 《범전》, 전작장편소설의 효시인 박경리의 《시

“아무리 힘들어도 책을 내는 일이 즐겁게만 느껴졌으니 ‘출판쟁이’가 제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읽혀도 부끄럽지 않은 책을 내는 게 출판원칙이었습니다.”



현암사를 창업한 조상원 회장.

출판과 졸업전시회

학생들이 제작한 CD롬 타이틀

백제예술전문대 졸업작품전



백제예술전문대 출판과의 졸업작품전시회 모습.

백제예술전문대학 출판편집과(학과장 김정숙)는 제3회 졸업작품전을 지난 11월 13일부터 4일간 대한출판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가졌다.

신문편집, 잡지, 사보편집, 일러스트레이션, 표지디자인 등 졸업생 60명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작품전에는 <설악산 관광안내> <재미있는 꽃 이야기>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CD롬 타이틀 10점이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들은 스토리보드에서 애니메이션,

선,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직접 ‘멀티미디어 튜북’이라는 저작도구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출판학과 졸업전시회에 CD롬 타이틀이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민호(23)씨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실전에 응용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과 전장》, 국내 명저해설집으로 한국학 연구부를 일으킨 《한국의 명저》, 단행본 시리즈물의 유행을 몰고 왔던 《현암신서》, 한국문화유산을 집대성한 컬러도판집 《한국미술5천년》, 대하소설의 인기를 문화현상으로까지 끌어올린 황석영의 《장길산》 등은 기념비적인 출판물로 출판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암사는 50주년을 맞은 올 한해를 재창업의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 2월 <환경생태 사진전>을 개최한 것을 비롯, 8월에는 독자들이 참여하는 <환경생태 답사 여름캠프>, <독일동화 자전거여행>을 치렀으며, 비문학분야의 저술을 복돋운다는 취지로 <현암저술상>을 공모하는 등 활기찬 기념행사를 주최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많은 출판·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에서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

“내 자식들에게 읽혀도 부끄럽지 않은 책을 내는 게 제 출판원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물이 흐르듯이 진실을 찾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조회장은 시류에 밀착되어 있는 요즘음의 출판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명감보

다는 상업성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는 세대가 원로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다.

“분명 출판도 시대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본질과 원칙을 벗어난 채 유행에 뛰어드는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우상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던 시절, 일부러 한국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출간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판은 무엇보다 사회의 선(善)과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회장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사무실에 출근한다.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천성을 가진 그에겐 일을 하는 것이 곧 건강의 비결이다.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 30년을 계속해온 낚시는 그만두었지만, 워드프로세서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만큼은 변함없다.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장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조회장은 《법과 세상만사》라는 수필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해방동지로 태어나 이제 50살이 된 현암사가 ‘50년의 전통, 1백년의 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허연 기자